

2019.02.11 (월)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 김영민

발제 : 김명재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게 좋아서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읽으면서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나눠봐요!

- 누구나 어느정도는 일상에서 시인들이고 철학자들이다. p266

이 책을 읽어보니까요

읽기 전에는 <‘추석이란 무엇인가’ 되물어라> 같이 재밌는 칼럼들을 기대했었는데요. 막상 읽어보니 뒷부분의 영화 평론에서 가장 큰 지적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묘하게 삐딱하고 비관적인 향기가 흐르고 있는 책인데, 영화 <안토니아스 라인> 평론을 읽고 나서야 향기의 근원이 실존주의임을 알았습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왜 사시나요? 혹은, 왜 죽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이야기 나눠봐요

- 책을 읽고나서 하고싶은 말이 생겼다면 나눠주세요. 딱히 할 말이 없다면 재밌었던 내용들, 혹은 표현들을 말해봅시다. 그것도 없다면 아무 말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재밌었던 표현들은:
 - 결혼생활을 하다가 느닷없이 배우자가 화를 내면, 심중팔구 당신이 못 생겨서입니다. 다른 이유로 화를 내려다가도 상대가 잘생겼으면 화를 참았을 테니, 결국 배우자가 화를 내는 것은 당신이 못 생겨서입니다. p48
 - 한국에 돌아가면 열차 강도를 해도 이런 집에 못 산다는 것을. p53
 - 우리는 삼중당 문고 목록에 줄을 그어가며 군사정권이 경제개발 하듯 읽어나갔다. p218
 - 그의 뱃살은 신도시 부근 보신탕집처럼 끝내 생각이 없었다. p221

- 인생의 지리멸렬함(p4)에 대해서 (*지리멸렬: 이리저리 찢기고 마구 흩어져 갈피를 잡을 수 없음)
 - 사르트르
 - 인간은 세상에 던져졌다.
 - 인간은 자유를 선고받았다.
 - 인간은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 인간은 자기 행위의 총 합이다.
 -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 영화<안토니아스 라인>의 답변: 자연은 그 질문을 잊는 공간이다. 그 질문을 잊음을 통해 애초에 가졌던 의문을 해소한다. 이 스스로 그러한 세계. 이것도 신의 한 이름일지도 모른다. p259
- 본인이 쓰레기가 아니라는 증거를 나눠봐요
 - 어쩌면 인간은 다 쓰레기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늘도 마주치는 개들에게 속삭인다. 네가 좋아하는 인간이라는 포유류는 사실 좀 그렇단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쓰레기일지는 몰라도 순수에 가까운 정도의 전폭적인 쓰레기는 아니기를 바란다. 최소한의 존엄에 대한 환상이 있어야 인간은 제정신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자신의 어느 한 조각만큼은 쓰레기가 아니라고 믿고 싶어 한다. 내 경우, 저 조교의 이메일은, 내가 저 순간만큼은 쓰레기가 아니었다는 물적 증거로 남았다. 학생에게 선물을 요구하는 교수가 아니라는 최소한의 자존의 증거가 거기에 있었다. p102.
- 위력에 대해서
 - 위력이 왕성하게 작동할 때는, 인생이라는 극장 위의 배우들이 이처럼 별생각 없이 자기가 맡은 배역을 수행한다. 당시 교수들도 자신이 위력을 행사하고 있으리라고는 새삼 생각하지 않았으리라. 위력이 왕성하게 작동할 때, 위력은 자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위력은 그저 작동한다. 가장 잘 작동할 때는 직접 명령할 필요도 없다. 니코틴이 부족해 보이면, 누군가 알아서 담배를 사러 나간다. p131
 - 안희정 전 총남지사
 - [공소사실 '모두 무죄'서 '9건 유죄'... '안희정 1심'이 뒤집힌 이유](#)
 - ["우리는 이미 이겼다. 기울어진 운동장 바꿨다" 안희정 유죄 환영 집회](#)